

## H. Bergson의 인식 이론

崔 祐 源

###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진화의 세 갈래 |
| 2. 존재와 무  | 6. 지성과 본능   |
| 3. 지속 모델  | 7. 철학적 직관   |
| 4. 생명과 물질 |             |

### 1. 머리말

Bergson은 존재와 무에 관한 고대 형이상학적 사유로부터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에 이르는 과정을 지성적 인식이라는 동일한 주제의 변주로서 파악한다. 인식의 문제에 대하여 Bergson의 철학이 공헌한 중요한 부분들 중의 하나는 지성의 실용적 성격을 밝혀낸 점이다. 지성은 순수 사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한 가지 기능으로서 진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은 자연히 인식에 관한 이제까지의 철학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수정케 한다. 우리는 인식을 *Theoria* 또는 선형적인 견지에서 이해하려던 관념론적 태도를 그만두고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기체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연관된 대상을 파악하는 기능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인식을 인간의 차원에서만 다루던 종래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모든 생물계에 있어 대상 파악의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진화해 갔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다.

Bergson이 지성적 인식을 비판하고 인간의 정신과 생명의 진화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하게 된 것은 당시의 유물론과 기계론이 근거한 가정들이 전적으로 오류임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Comte 이후 경험에 입각한 실증적 지식만이 정당함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그들의 철학이 실증적 과학에 입각한 실증적 이론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생각은 착각으로서, Comte의 실증주의는 유물론을 형이상학으로 취급하여 부정하는 것이다. 과학은 경험에 입각한 상대적인 지식에 한정되는 것임을 그들은

있고 있었다. 과학은 결코 유물론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유물론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꿈이요 환상이다.

Bergson은 실증적 차원에서 생물학과 진화의 흔적을 연결하며 이를 철학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내부 성찰로부터 찾아낸 순수 지속의 생명적 동기를 생물학에 적용함으로써 진화론으로 발전해 간 것이다. 지성의 기원과 경향을 밝히고 그러한 방식에 입각한 철학 체계가 고대로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발전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Essai*에서의 심리학적 내부 성찰을 *Matière et Mémoire*에서는 정신과 육체, 표상과 기억, 행동과 의식에 관한 일반 이론으로 확장하고 *L'évolution créatrice*에서는 그 일반 이론을 생물계의 진화 현상에 적용하여 생명과 물질의 형이상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Bergson의 인식 이론을 논함에 있어 우선 지성적 인식의 본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지성적 인식은 고대에서는 이데아의 철학으로 귀결하였고 근대에 있어서는 기계론적 결정론에 도달하였다. 이 사실을 고찰한 다음 Bergson의 진화론적 철학을 논하기로 한다. 우리는 생명과 물질의 대립이라는 주제를 엔트로피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다음 진화의 과정을 식물의 방향, 지성의 방향, 본능의 방향으로 나누어 비교하기로 한다.

## 2. 존재와 무

존재와 생성에 관한 고대 형이상학적 사유는 Parmenides에 이르러 본격적인 차원에 접어든다. Pythagoras 학파의 일원이었으나 그 학파의 이론을 부정하기에 이르지만 Parmenides의 기본 원리인 사유와 존재의 일치는 Pythagoras로부터 물려받은 신념인 것이다.<sup>1)</sup> 일반적으로 고대 철학은 수학의 명료함에 사로잡혔고 그 수학의 명료함이야말로 진정한 실재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 실재에 대한 지식은 지적인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Parmenides는 이러한 생각을 생성과 존재의 문제에 적용하여 영원한 일자의 결론에 도달한다. 생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것은 무가 존재가 되고 존재가 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는 원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사유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무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무가 있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물을 벗어나서 어떤 지적 사유도 전개할 수 없다. 따라서 생성은 없다. 또한 실재는 일자이다. 다자 일 수 없다.<sup>2)</sup> 왜냐

1) F. M. Cornford, *Plato and Parmenides*, pp. 28 - 52 참조.

2) Parmenides는 이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실재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라는 가정은 Thales로부터 그에게까지 계속된다. 그에 있어 새로운 것은 일자가 다자일 수 없고 또한 다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Ibid*, p. 35. 우리는 그 증명을 본 논문의 흐름에 맞추어 추정하려는 것이다.

하면 다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다자들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간적으로 분리된 타자의 개념에서 다자의 개념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런데 타자들을 분리하고 있는 공간은 그 자체로서 무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자기 모순이다. 따라서 실재는 다자가 아니다. 따라서 실재는 영원한 일자이다.

우리는 Parmenides의 이러한 극단적 주장을 완화하기 위해 다원론자들이 어떠한 이론을 전개하였는가를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Platon과 원자론을 논하는 것은 지성의 본질을 드러내려는 우리의 작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Platon이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를 실재로서 생각한 것은 Parmenides적인 사유의 연장이었다. Idea의 세계는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여 실재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지적인 순수 사유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일러지는 것이다. Idea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상하는 공간적 image와 차원이 전혀 다른 형이상학적 실체이다. Platon에 있어서는 다자로서의 이데아들을 생각하여도 Parmenides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Platon의 Idea는 공간 내의 존재가 전혀 아니므로 무의 개념을 바탕으로 상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운동, 변화하는 경험적 자연 세계에 대한 어떠한 만족할 만한 설명도 주어질 수 없다. 고대 철학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숨어 있다. 영원한 것은 생성하는 것보다 완벽한 것이며 우리는 감소 내지 경감을 통하여 불변성에서 생성으로 옮겨 간다. 감각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는 무엇인가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그럼자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물리학은 타락한 논리학이 될 수 밖에 없다.<sup>3)</sup>

한편 원자론은 일전 운동과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Platon이 원자론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의 철학의 방향이 크게 변화했을지도 모른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원자론이 동시대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 같다.<sup>4)</sup> 원자론은 특히 근대에 있어 자연 과학의 수학화를 이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Aristoteles의 물리학은 질적 변화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잠상태, 완전태, 현실태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성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론은 몇가지 종류의 원자를 상징하고 같은 종류의 원자들은 완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자연계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이 원자들의 결합 숫자나 공간적 결합 방식의 변화로 환원해서 생각하므로 수학적 물리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 등은 동일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자 하나 하나는 모두 Parmenides의 일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원자의 항구성에 대해서는 고대나 근대나 전혀 차이점이 없다. 단지 Epicurus는 원자를 자유 운동하는 것으로 생각한데 반해 근대의 원자론은 원자를 기

3) H. Bergson, *L'évolution créatrice*, p. 319. 이후부터 E. C.로 약함.

4) J. Burnet, *Greek Philosophy*, p. 76.

Leucippos는 만일 공간이 없다면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Elea 학파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공간을 비존재와 동일시 하는 것을 부정하였던 것이다. 그는 공간의 존재를 의식적으로 긍정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Ibid.* p. 77.

계적 법칙에 따르는, 즉 외부 원인에 의해 운동이 견정되는, 죽은 것으로 본 점만이 다를 뿐이다. 이제 근대 과학은 어떠한 자연 현상도 물리적 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아무리 먼 미래라도 견정된 것으로서 예측 가능하다는 자신에 차 있게 된다. 이 같은 입장은 시간을 완전히 공간화하여 등질적인 것으로서 수량화하여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의 인과율도 결국은 **Parmenides** 적인 동일율의 한가지 변형에 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동일한 원인은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 라던가 원인 속에 없는 것이 결과 속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라는 원리를 근대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고대의 원자론은 근대에 부활하여 기계론과 결합함으로써 근대 물리학을 탄생시켰다. 원자론, 인과율등은 모두 지성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에 언급이 되겠지만 지성은 생명의 무기물질에 대한 하나의 작용 방식으로 진화해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운동을 부동적인 것에 의해 재구성하여 파악하려는 경향이다. 지성은 고정적인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을 찾고자 한다.

그런데 원자론을 잘 반성해 볼 경우 존재와 무의 문제점을 그 바탕에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론에서 우리는 존재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마치 용단 위에 펼쳐지듯 허무 위에 전개된 것이라고 표상한다. 이 경우 먼저 무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존재가 덧붙여 있는 것이라고 상상한다. 이와는 달리 원자가 애초부터 존재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논리적 차원에서 무는 그것의 용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는 영원히 존재에 선행해야 마땅하다. 존재가 항상 존재로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존재로 채워지고 그 존재로 막혀버린 듯이 보이는 무는 여전히 그 존재에 앞서 있다. 결국 충만이란 공백이라는 화포 위에 놓은 자수이며 존재란 무에 포개 놓은 것이고 무의 표상이 유의 표상보다는 작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창조적 진화 4장에서의 무의 개념 분석의 결론은 원자론에 내재한 이론적 모순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ergson**은 무의 개념이 사이비 관념에 불과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동근 사각형의 개념과 같이 자기 모순이며 따라서 무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언어의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무는 개념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불안동에 의해 느껴지는 감정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우리는 지성이 갖는 본질적인 착각에 의하여 부재에서 실제로 공백에서 충만으로 옮겨 간다.<sup>5)</sup>

이러한 형이상학적 난점 외에도 원자론의 또 한가지 근본적 결함은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수 많은 세포들이 서로의 기능상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단일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는 현상을 원자들의 기계적 운동 결과로 단순히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관찰을 중시하는 과학 정신으로부터 가장 어긋나간 태도가 아닐까? 기계론, 유물론은 생명의 자발성, 자유의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폐쇄적인 이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

5) E. C. p. 275.

간의 의식 행위에 있어 선택적 명증성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파이인 것이며 사유 의지와 사반성에 대한 내적인 성찰 위에 모든 이론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고대의 형이상학이 생성을 부정한 원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생성에 대한 형이상학의 부정적 태도는 생성이 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과 생성하는 존재는 비존재를 정복하고 자기 스스로 자취하기에는 너무 약해보인다는 점에서 유래한다. 고대의 형이상학이 진정한 존재에게 심리적 내지는 물리적 존재가 아니고 유독 논리적 존재를 제공하려 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논리적인 존재는 진리에 내재하는 힘의 효과만으로도 자립할 수 있음직한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어째서 다른 것이 아니고 불체와 정신이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한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나  $A=A$  라는 논리적 원칙이 영원히 무를 누르고 스스로 창조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원은 자신으로서는 비존재를 이겨낼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의 논리적 본질 즉 원의 정의는 영원한 것이다. 그것은 시간적인 존재도 공간적인 존재도 아닌 것이다.

생성이 있다면 그것은 무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사유와 존재의 필연적 일치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일 수 있는가? 여기서의 사유는 동일물에 근거한 형식 논리적인 사유를 말한다. 실제 자체가 형식 논리적인 것이라면 생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나 우리는 사유와 존재의 일치를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인간의 사유는 형식 논리적 사유의 한계 내에 머무르는 것인가?

Kant 이후 사유와 존재의 일치에 대한 전통적 신념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는 중세 말기의 유명론자들에게서도 그 부정의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음을 알고 있다.

Parmenides와 Platon에 있어서 사유와 존재의 일치에 대한 신념은 수학의 명석함에서 비롯한 결과임을 앞서 말한 바 있다. 즉 수학은 그 명석함으로 보아 분명히 실재에 대한 지식일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오늘날 수리철학의 한 부류인 논리주의에서도 그 같은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수학의 그 같은 해석은 끊임 없는 반론을 불러 일으켰으며 오늘날 우리는 직관 주의와 형식 주의에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해석을 볼 수 있다. 직관주의에서는 Kant를 따라 순수 직관 형식으로서의 시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수의 구성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형식 주의에서는 수학을, 수를 가지고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행하는 게임으로 비유하고 있다.<sup>6)</sup> 이 두 견해에서 공통된 점은 수를 실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거부하는 사실이다.

수의 실재성이라는 구속을 벗어남으로써 여러 수학 체계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이

6) S. C. Kleene, *Introduction to Metamathematics*, pp. 36-65.

체계들에 대한 평가는 유용성을 기준으로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수학이 실재와 본질적으로는 대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용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지성의 본질이 무엇인가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지성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지성의 본 영역이 순수 사유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정도에 그치기로 한다.

지성은 실용성을 지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 경험이 지성의 형성 바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선험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구체적 형태도 갖추지 아니한 순수한 생명의 의지 내지 자발성 뿐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경험, 선험적이라는 용어는 현재의 인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진화의 과정을 그 기원에까지 소급하였을 경우를 언급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것은 소용 없다. 즉 우리 인간은 분명히 선천적 인식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수학과 물리학을 비교해 보자. 수학은 경험에 전혀 의지할 필요 없이 그 진리성이 입증되지 않는가? 이 같은 주장은 수학적 명제와 물리학적 명제의 진리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는 점에서 옳으며 그것은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의 이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 우리의 이론은 보다 근본적인 데로 물음을 전개시켜 나간다. 진정한 철학은 모든 것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진화론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현재의 인간 지성에 어떤 일정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원시인에게도 그 같은 지성의 구조가 존재했을까? 아니 더 나아가 인류가 그로부터 진화한 원시인 이전의 생물 형태에도 그러한 구조가 있었을까?

지성을 순수 사변을 본분으로 하는 능력이라고 보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고 막연한 생각이나 독단적인 판단 밖에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인간은 지성의 틀을 환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우리들이 자신의 얼굴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처럼 지성도 지성의 형식을 갖추고 하늘에서 떨어진 셈이 된다. 물론 사람들이 그러한 형식을 정의하기는 하지만 한편 고작 정의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 형식이 어째서 그러한 형식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째서 다른 것이 되지 않았는지 하는 문제는 물어봐야 소용이 없다.

지성의 기원을 추적해가는 Bergson의 철학은 인간의 순수 사유 만을 철학의 대상으로 삼았던 Platon, Kant의 철학을 근본적으로 극복하여 보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생물계에 있어서 대상 파악의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진화하였는가 그리고 그들 진화를 움직여간 힘의 본성은 어떤 것인가를 탐구하고 있다.

### 3. 지속 모델

Elan vital의 형이상학은 순수 지속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순수 지속 모델이 가

지고 있는 실증성에 대하여는 이미 논한 바가 있으므로<sup>7)</sup> 여기서는 필요한 부분만 간략히 이야기 하자.

순수 지속은 *Essa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리적인 내부 성찰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우리의 의식을 세밀히 반성할 경우 의식의 흐름은 연속성, 불가예측성, 상호 침투성, 비가역성, 질적 다양성을 지닌 의지 자체임을 알 수 있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현재의 순간이 분명히 과거의 순간들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이 현재의 순간에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침투해 들어와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과거에 없던 새로움이 나타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의식의 세계는 점점 불어나가는 것이다. 현재의 의식은 과거와 현재 간의 분명한 타자성과 상호 침투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질적 다양성이라고 규정한다.<sup>8)</sup>

우리의 의식이 긴장하여 정신 집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의 의식에 침투해 들어 오는 과거 기억의 양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긴장이 풀려 우리의 주의가 산만해지고 의식이 약화된 경우, 즉 잠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의 침투, 연결이 희미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지속의 비결정성은 단순한 우연과는 다르다.<sup>9)</sup> 그것은 보존된 과거를 바탕으로한, 의지의 결단과 창조성이라는 적극적 성격을 갖고 있다.

Bergson의 이러한 지속 개념은 유기체 각 기관들의 기능적 침투, 조화라는 생명의 일반 현상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장점이 있다. 그는 물리적 세계를 설명함에도 동일한 모델을 연장시킨다. 즉 약화된 지속으로 물질을 규정한다. 이제 우리는 무의 개념에 근거하여 존재를 이해하는 오류를 벗어날 수 있다. Bergso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무의 관념을 지나서 존재의 관념에 도달하려는 경우 우리가 다다른 존재란 논리적 내지 수학적 본질이며 따라서 비시간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적인 존재 개념이 불가피하게 대두된다. 즉 모든 것은 영원 속에서 단번에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무의 유령에 문의하기에 앞서 직접 존재를 생각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동할 목적으로 보려하지 말고 오직 보기 위하여 보도록 애써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는 우리와 지극히 가까운 곳에 또 어느 정도 우리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 낸다. 절대는 심리적 본질에 속하는 것이지 수학적 내지 논리상의 것이 아니다.<sup>10)</sup>

7) 본인의 논문, H. Bergson 철학 연구 I, 1980.

8) Bergson은 *Essai* 2장에서 수적 다양성(*la multiplicité numerique*)과 질적 다양성(*la multiplicité qualitative*)을 분명히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수적 다양성은 등질적 공간 속에서 존재가 서로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

9) H. Bergson, *Matière et Mémoire*, p. 67.

10) E. C. p. 298.

Bergson은 공간적 인식 대신 시간적 사고에 입각한 세계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이 지속 모델에 있어 Descartes 적 2원론의 난점이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속해있는 것 중 외부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 있고 동시에 보다 지성의 작용이 덜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집중시켜 보자. 자신의 경험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우리 고유의 생명에 가장 내재적인 지점을 찾아보자. 이 경우 우리는 순수 지속 속에 잠기게 되는데 그 지속 속에서는 과거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전혀 새로운 현재에 의해 끊임 없이 옮겨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의지의 용수철이 팽팽하게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것도 느낀다.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인격을 격렬하게 수축시킴으로써 우리들은 빠져 나가려는 과거를 모아 담고 떨어져 나가려는 과거를 밀집하며 과거를 창조될 현재 속에 밀어넣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그러한 정도로 자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순간은 매우 드물다. 그러한 순간에 진실로 우리의 활동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sup>11)</sup>

그러면 이제 긴장을 풀고 과거를 현재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중단해 보자. 만약 긴장이 완전히 풀려지면 기억도 의지도 없어져 버릴 것이다.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같은 절대적 수동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극한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 지속은 흔적도 없고 사라졌다 다시 소생하는 순간적인 것이 무한히 반복될 뿐인, 끊임없이 새로이 시작되는 현재로 이루어지는 존재가 그것이다. 바로 그것이 물질의 존재인가? 의심할 바 없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물질의 지속은 매우 약하여 거의 사라져 가고는 있지만 지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리적 존재가 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처럼 물리적 존재가 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정신이 순수 공간에 대하여 이루는 표상은 이러한 운동이 향하는 극한의 도식(schema)에 지나지 않는다.<sup>12)</sup> 완전한 공간성이라는 것은 부분끼리 완전히 서로 소외할 때 즉 완전히 상호 외재적으로 독립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sup>13)</sup>

공간에 관하여 말한다면 정신은 자신의 고유한 노력에 의하여 공간적이 아닌 것이 공간적인 것으로 퇴행하는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우리는 가능한 한 우리의 의식 속에서 높은 데에 위치하고 그 곳으로부터 조금씩 몸을 떨어뜨려 보자. 그러면 자신의 자아가, 긴장하여 불가분하고 능동적인 의지로 되려하지 않고, 생기가 없고 상호 외재적인 기억들로 확장되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움직임일 그리면서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리켜주며 그 움직임이 끝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우

11) 정신의 긴장과 자유는 비례하는 것이다. Essai에서는 자유를 전인격(notre personnalité entière)이 참여한 행위에서 찾고 있다. Essai, p. 129.

12) E. C. p. 203.

13) E. C. p. 204.



리에게 비친다. 의식은 그렇게 멀리까지는 가지 못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방향의 극한점에 물질이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물질은 공간적이라는 명제가 내포하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간과 일치될 이루는 것 같이 보이던 물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의 주의력이 그에 집중됨에 따라 조금 전까지 병렬되어 있다고 말했던 부분들이 전체의 작용을 받고 있으므로 물질이 상대방 부분에 가담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물질이 공간의 방향으로 자신을 전개하여도 완전히 그 곳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물리학은 물질을 공간성의 방향으로 추진시킬 때 자기의 역할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이 물리학과 같은 방향으로 물리학보다 더 멀리까지 가보려고 공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있기 때문일까? 형이상학의 본래의 임무는 오히려 그 반대로 물리학이 밟아 내려 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이를테면 심리학을 뒤집어 놓은 듯한 우주론을 점차적으로 구성해 나아가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대체로 물리학자나 기하학자에게 실증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참다운 적극성이 중단된, 또는 역전된 것이 되며 참다운 적극성은 심리학적 용어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수학에는 완벽한 질서가 있고 우리가 그 논리 전개에 엄밀함, 명석함을 연상할 때 이 같은 관점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다. 그 같은 질서를 확인하고 경탄하는 우리의 지성은, 그 대상의 물질성, 공간성에 도달하는 운동과 동일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sup>14)</sup>

지속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계의 질서나 기하학적인 질서는 퇴행의 결과로 당연히 간주된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과학에 대한 평가절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두뇌에 결함이 있다.<sup>15)</sup>

물리학, 기하학 등은 이러한 질서의 세계에 대한 유용한 지식의 체계이며 이 과학들은 물질 세계를 우리의 삶을 위해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은 물질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진화하여 왔다고 Bergson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까지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을 경고하고자 함이 Bergson의 과학에 대한 태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속 모델은 물리적 세계에서 타자성을 파악한다 할지라도 공간적 단절로서가 아니라 상호 침투성의 약화로 간주한다. 우리의 지성은 행동의 필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해 관계가 없는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성은 자신의 관심을 국한하여 약화된 상호침투성, 이질성, 불가예측성을 무시하고 불연속적이고 동질적이며 기계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유용성을 위한 자연 과학의 자연스러운 경향

14) E. C. pp. 209 - 210.

15) B. Russell은 Bergson철학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 Bergson이 본능과 직관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관이 개미와 벌, 그리고 Bergson에서 가장 발달했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이 부실한 태도가 Bergson철학을 반과학주의로 잘못 이해하게 만든 것이다. *The Philosophy of Bergson*, Macmillan, 1914.

인 것이다.

#### 4. 생명과 물질

Bergson의 형이상학은 생명과 물질의 대립이라는 기본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Bergson은 생명을 상승 운동으로, 물질은 하강 운동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그에 있어 생명은 물질의 저항을 뚫고 전진하려는 의지 자체인 것이다. 다분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생명과 물질의 가설이 어떠한 실증적 근거에서 비롯한 것인가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열역학 제 2법칙은 물리적 세계의 진행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즉 물리적 세계는 점차 이질성이 약화되어 등질적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법칙은 또한 시간의 비가역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인용된다.

엔트로피 증대의 극한점은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의가 수 없이 많이 있어 왔음을 볼 수 있다. 우주 내의 변화력이 모두 소진되어 더 이상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면 바로 그것이 시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정지되어 어떠한 변화도 없을 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우주의 변화력이 극대였던 점을, 시간의 흐름을 역으로 추정함으로써 가정할 수 있다. 만일 모든 우주의 과정이 반드시 엔트로피 증대의 방향 쪽으로만 흐른다면 이 시점은 시간의 시초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이 시점을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이보다 앞선 시점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고 반론을 해도 타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반론은 하느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하는 의문과 동질의 것이다. 이에 대해 Augustine은 이 질문의 모순성을 논하고 있다. 이 세계는 시간과 함께(cum tempore)— 시간 안에서(in time)가 아니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은 자기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시점 이전의 시점을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떠나서는 시간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전 우주가 엔트로피가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한다고 가정하였다.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우리의 태양계와 같은 세계는 그것이 포함한 변화력의 어느 정도를 끊임없이 소모하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에너지의 사용 가능량이 최대에 이르렀었다. 그 변화력은 계속 줄어 갔다. 이 변화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선 그것은 공간의 어딘가 다른 점에서 오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하면 난점은 후퇴했을 뿐이고 그 변화력의 외부 원인에 대하여 똑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난점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변화력을 교환하여 줄 수 있

는 무한한 수의 세계들을 가정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우주에 내재하는 변화력의 총량이 무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화력의 기원이란가 종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영원히 새롭게 소생시키는 우주에 대한 생각은 그리이스 자연 철학자들에게까지 소급되는 것이며 현대에 있어 열적 종말의 불가피성을 부정하려는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우주의 어느 곳에서는 엔트로피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또 하나의 가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불안정이 일반적인 안정 상태에서 나왔으며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기간, 즉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기간은 변화력이 전적으로 증대한 기간 다음에 오는 것이며, 이 증대와 감소는 한 없이 교차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우주의 엔트로피는 반복적으로 증가, 감소한다는 것이다.<sup>17)</sup>

이 세가지 가설 중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단지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현대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증대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피도록 하자. 우선 특수상대론이 물질과 에너지의 고전 물리학적 구분을 극복하였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엔트로피 증대 법칙은 에너지의 한 형태로서의 물질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양자론에서는 에너지의 분산 과정을 에너지가 점점 더 작은 양자들로 분열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Jeans에 의하면 엔트로피 증대는 모든 radiation의 파장이 길어지는 경향의 한가지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sup>18)</sup> 양자 역학에 의하면 모든 에너지는 — 물질로서의 에너지도 물론 — 파동의 성격을 갖는다. 전자기파와 물질 사이의 구분은 전자기파가 적은 파동 수와 따라서 긴 파장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일 엔트로피의 증대가 모든 종류 에너지의 파장이 점진적으로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물질에도 적용될 것이고 이것은 물질이 방사선으로 점차 변환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의 역과정, 즉 광자의 물질화 현상이 발견된 것이 이에 대한 유효한 반론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물질의 field화 현상보다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질의 field에로의 변환은 그 역과정에 비해 훨씬 확률이 높고 따라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sup>19)</sup>

이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엔트로피 증대 과정의 이해 위에 생명과 물질의 형이상학을 정립할 단계에 왔다. 고전 물리학의 소입자적, 기계적 물질관에 입각하는 한 우리는 생명 현상을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16) S. Arrhenius, *Worlds in the Making* (transl. by H. Borns), Harper & Bros, New York, 1908, p. 209.

17) L. Boltzmann은 이러한 가능성이 극히 작은 확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8) Sir James Jeans, *The Universe Around Us*, 4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4. p. 278.

19) M. Capek, *Bergson and Modern Physics*, Boston.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Vol. VII 1971, p. 383.

생명은 하나의 유기체를 중계로 하여 한 배자(germe)에서 다른 배자로 옮겨가는 흐름과 같은 것이다. 이 생명의 흐름은 자신이 유기화한 물체를 차례로 지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강화되면서 종(espèce) 사이에 나뉘어지고 개체들로 분산되는 것이다.

열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과 물질은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의 흐름이다. 생명에는 물질이 내려가는 언덕길을 거슬러 오르려는 노력이 있다. 생물의 진화는 이 두 흐름이 투쟁하는 과정인 것이다. 생명은 물질과 결부됨에 따라 유기체 속에 고정되었고 유기체는 생명으로 하여금 물질의 일반 법칙을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마치 생명이 그러한 법칙을 벗어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듯이 진행된다. 생명에게는 물리적 변화를 엔트로피 증대의 반대 방향으로 돌릴 만한 힘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생명은 그대로 놓아두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힘처럼 절대적으로 행동한다. 물질적인 변화의 행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생명은 그 행진을 늦추게 할 수는 있다.<sup>20)</sup> 물리학적으로는 생명의 이러한 힘을 negative entropy 라고 부른다. Costa de Beauregard, Léon Brillouin 등은 생명 현상과 negative entropy 의 관계를 자세히 논하고 있다.<sup>21)</sup>

이제 생명과 물질의 대립이라는 가설 위에 세워진 Bergson의 진화론에서 인식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도록 하자.

## 5. 진화의 세 갈래

Bergson의 진화론은 동시에 인식론이다. 그에 있어 인식의 문제는 형이상학의 문제와 동일한 것이며 양자 모두 경험으로부터 유래하는 문제임을 분명히하고 있다.<sup>22)</sup> Bergson이 일반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편적 생명과 동연(coextensif)의 것으로서<sup>23)</sup> 그는 이 일반적 의식이 생명의 진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들로 발전해 갔는가를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과로 보면 마치 어떤 폭 넓은 의식의 흐름이 서로 침투하는 다양한 잠재력을 지니고 물질에 침입해 온 것처럼 일이 진행된다. 물질은 이 흐름에 끌려 들어가 유기 조직이 되었으나 그 흐름의 운동은 물질에 의해 지체되고 또 갈라졌다. 생명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나타났을 경우 그것은 무기 물질에서 어떤 종류의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생물의 다양한 형태의 심리 활동을 무엇

20) E. C. p. 247.

21) Costa de Beauregard, Certain Aspects of the Irreversibility of Time in Classical and Quantum Physics, Bergson and the Evolution of Physics 중 (edited by P. A. Y. Gunter), Knoxville, 1969, pp.77-105.

22) E. C. p.179.

23) E. C. p.187.

보다도 무기 물질에 대한 상이한 활동 방식으로 간주한다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우리는 생명의 근저에, 물리적 힘의 필연성 위에 가능한 한 최대한의 비결정성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노력은 에너지를 창조하는데 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력은 다만 자신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존의 에너지를 자신의 창조적 자발성을 마음껏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진행된다. 이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뿐이다. 그것은 충분한 양의 잠재 에너지를 물질로부터 획득하여 축적해 놓고 일정한 순간에 그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작업을 달성하는 것이다.

최초의 생물은 한편으로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끊임 없이 축적하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동 운동에 의하여 불연속적이며 폭발적인 방법으로 소비하고자 하였던 것을 분명히 추정할 수 있다. 열록소를 지닌 Eugène는 오늘날까지도 발육이 불완전하고 진화 불능한 형태로나마 이 같은 생명의 근본적인 경향을 상징한다고 하겠다.<sup>24)</sup>

그런데 지구 상에서 생명이 자신의 목전에서 발견하는 물질의 본성 자체가 이 두 가지 경향이 함께 동일한 유기체 내에서 충분히 멀리까지 진화하는 것을 가로막았던 것이 아닐까?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식물은 제 1의 방향으로 기울어졌고 동물은 제 2의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이다. 이 두 세계의 조화는, 즉 그들이 보여주는 상보적 성격은 결국 처음에는 하나로 융합되어 있던 두가지 경향을 그들이 각각 발전시킨다는 사실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운동성과 의식 사이에는 명백한 관계가 있다.<sup>25)</sup> 식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성분 특히 탄소나 질소를 공기나 물이나 흙으로부터 직접 취한다. 즉 그것들을 광물의 형태로 취한다. 반면에 동물은 이러한 원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원소들이 식물이나 다른 동물에 의하여 유기 물질 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섭취할 수 없다. 식물은 광물질을 가지고 유기 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으므로 식물은 일반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며 또한 느끼지 않아도 좋은 것이다. 셀룰로오스의 막이 식물의 세포를 둘러싸 식물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광합성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면에 동물은 자신의 영양물을 찾으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동 활동의 방향으로 진화하였고 따라서 의식이 점점 풍부하고 뚜렷한 방향으로 진화해 온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진화의 세 갈래를 정의함에 있어 어떤 집단이 이미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특징을 강화하는 경향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다면 식물과 동물은 명확히 정의되고 구분되며 그들은 생명의 두 가지 상반되는 발전에 잘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상반성을 우선 영양의 섭취 방식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sup>26)</sup> 식충 식물의 예가 제

24) E. C. p.117.

25) E. C. p. 111.

26) E. C. p. 107.

기한 식물과 동물의 구분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지성과 본능을 논함에 있어서도 강화되는 경향을 고려한 정의 방식에 입각할 것이다.

진화의 역사를 상세하게 재구성하기에는 우리들에게 자료가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윤곽을 간파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한 바와 같이 동물과 식물은 일찍부터 그 공통 근원으로부터 갈라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으로서 식물은 고착성 속에 잠들어 버리고 반대로 동물은 점점 깨어나 신경 계통 획득의 길로 매진해 갔다. 동물계가 노력 끝에 만들어낸 유기체는 아직 간단한 것이었으나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운동성이 갖추어졌고 그 형태는 장래의 모든 확정에 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불확정적으로 되어 있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극피, 연체, 절족, 척추동물과 같은 동물들의 공통적인 근원을 이루고 있는, 무한히 유연하며 다분히 확정적이지 아닌 미래를 품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동물성을 구성하는 것은 축적된 잠재 에너지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원시 동물에 있어 에너지 방출은 자기가 바라는 방향을 선택할 여지가 없이 우연히 일어났을 것이다. 아메바가 위쪽을 아무 방향으로나 뻗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동물 계열의 상위로 올라감에 따라 신체의 모양 자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의 방향을 뚜렷이 그려주고 에너지도 그 방향을 따라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 요소들의 사슬은 그 방향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신경 요소는 유기 조직이 거의 분화되지 않은 전체로부터 조금씩 생겨난 것이다. 신경 요소가 생겨난 후로는 축적 에너지를 방출하는 능력이 이 신경 요소와 그 부속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sup>27)</sup>

뇌-척수 신경 계통과 그것이 연장된 감각기관들, 그리고 그것이 지배하는 운동 근육들을 한데 묶어 감각 운동 계통(*système sensori - moteur*)이라고 부른다면 고등 유기체는 본질적으로 소화, 호흡, 순환, 분비 등의 기관들 위에 설치된 감각 운동 계통에 의해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기관들은 감각 운동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며 일정한 내부 환경을 유지해 주고 결과적으로 무엇보다 이동 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잠재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경 기능이 완벽하면 할수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은 기능들이 점점 발달해야 하고 따라서 그들 자신에 대해 엄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신경 활동이 자기가 묻혀 있던 원형질 덩어리로부터 드러남에 따라 그 주위의 모든 활동들을 불러들여 그들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 활동들 또한 다른 여러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만 발달할 수 있었고 이 같은 과정은 끝 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등 유기체들의 기능의 복잡화는 무한성을 띄게 된다. 그 유기체를 연구해 보면 일체가 일체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원 운동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원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감각 기관과 운동 장치와의 사이에 있는 신경 요소의 체계인 것이다.<sup>28)</sup>

27) E. C. p.121.

28) E. C. p.126.

고등 유기체로의 진화는 동물이 한 동안 부딪혔던 위험을 극복한 결과이다. 어쩌면 동물의 비약을 저지할뿐 했던 장애물이 있었다. 원시기의 동물군을 살펴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굳은 겹질 속에 동물이 갇혀 있던 것으로서 그들은 그 겹질 때문에 운동을 방해받았고 흔히 마비되기까지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연약한 유기체가 자신을 가능한 한 다른 것이 삼킬 수 없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몸을 지키려는 경향에서 찾아야 한다. 원시 유기체 중에는 무기물로 유기물을 만들어 내기를 포기하고, 이미 식물 생활로 들어간 유기체로부터 유기물을 획득함으로써 동물성을 향하게 된 것들이 생겼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자체 속에도 다른 동물을 회생시킴으로써 살아가도록 마련된 동물이 많이 나타났다. 동물이라는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들의 기동성이 증대하면, 할수록 필경 상호간에 탐식스럽고 위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동물계 전체가 점차 고도의 운동성으로 향하던 진보를 갑자기 정지해야만 했다. 극피 동물의 딱딱한 석회질 피부, 연체 동물의 각, 갑각류의 갑, 원시 어류의 경린의 투구등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을 보호한 갑옷은 그 동물들의 운동을 방해하였고 때로는 그들을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식물이 자기를 셀룰로오스 막으로 감싸면서 의식 생활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동물은 성채나 갑주 속에 자신의 몸을 가두고 자신을 반수면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극피 동물은 물론 연체 동물마저도 이러한 마비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절족 동물과 척추 동물도 물론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위협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 행운 덕분에 그들은 생명의 최고 형태인 현재의 개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sup>29)</sup>

척추 동물과 절족 동물의 두 방향에서 운동으로 향한 생명의 약동은 다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보인다. 어류는 경린의 갑옷을 비늘과 바꾸었다. 그보다 훨씬 전에 곤충류가 나타났는데 그들 역시 그들의 선조를 보호했던 갑옷을 벗어버렸다. 이 양자는 모두 외피의 약함을 민첩성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척추 동물과 절족 동물은 두 길을 따로 따로 진화하였는데 그 두 줄기의 발달은 무엇보다도 감각 운동 신경 계통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족 동물에서 부각되는 행동의 메카니즘이 척추 동물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각각의 행동 메카니즘을 가장 고도로 발전시킨 종을 하나씩 찾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척추 동물에서는 인류를 들 수 있으며 절족 동물에서는 곤충, 특히 그 중에서도 막시류(hyménoptères)를 들 수 있다.<sup>30)</sup>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류에서 정점에 도달해 있으며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막시류에서 정상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29) E. C. p. 132.

30) 본 논문의 전개를 위해 막시류를 본능이 가장 발달한 무리로 본 근거를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다.

Bergson은 식물의 본능을 일단 영양 섭취 방식에 의해 구분하고 이로부터 동물성의 기본적 성격이 운동성에 있음을 파악한다. 그리고 기존의 동물 분류 방식에 위기하여 이 운동성을 강외해 간(즉 감각 운동 신경 계통을 발전시키 간) 분류를 짓는다. 식물 본능과 지수 본능이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에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해 본 결과 상이한 행동 방식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안다. 즉 본능의 지성이 그것이다. 이제 이 두가지 경향을 비교하도록 하자.

## 6. 지성과 본능

만일 우리들이 모든 오만을 벗어버리고 우리 인류를 정의하기 위해 역사시대 및 선사시대가 인간이나 지성의 불변적인 특성으로 제시하는 것을 엄격히 따르다면 아마 우리는 인간을 Homo Sapiens 라고 하지 않고 Homo Faber 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인간의 지성을 그 본래의 특성에 의해 살펴보면 도구를 제작하고 그 제작에 끊임 없이 변화할 수는 능력이 있다.<sup>31)</sup>

이와는 달리 본능은 유기 조직의 작업 그 자체의 연장이거나 오히려 그보다도 그의 완성임을 알 수 있다. 완성된 본능은 신체로서의 유기체인 도구를 이용하고 만들기까지 하는 능력이이다.<sup>32)</sup> 본능의 도구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수리되는 것으로서 세부의 무한한 복잡성과 기능의 놀란만한 단순성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그것은 자기가 하도록 된 것을 즉시 필요한 순간에 곤란 없이 완전하게 해내고 있다. 그 대신 그것은 거의 변함 없는 구조를 고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의 변화는 종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도구를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본능은 필연적으로 전문화되어 있다.<sup>33)</sup>

이에 반해 지성에 의해 제작된 도구는 불완전한 것이다. 그것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획득될 수 없고 거의 언제나 조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무기물로 되어 있으므로 모든 모양을 취할 수 있고 어떤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직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본능의 도구보다 못하지만 지성적 도구는, 본능에서 처럼 동물이 그 곳에서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의 원인을 폐쇄하지 않고 무한한 활동 무대를 열어주며 그 행동을 더 자유스럽게 만들어 준다.<sup>34)</sup>

본능쪽은 직접적인 성공을 보증 받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되어 있고, 지성 쪽은 불확실하긴 하지만 만일 그것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다가 성공한다면 그의 정복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

31) E. C. 140.

32) E. C. p. 141.

33) E. C. p. 141.

34) E. C. p. 142.



지성과 본능은 발전함에 따라 점점 멀어지는 것을 견제 되지만 서로 완전히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 가장 완전한 본능의 본능에도 진육의 장소, 시기, 재료를 선택할 때에는 지성의 비광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꿀벌이 야외에서 벌집을 만드는 경우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롭고 감으로 지성적인 장치를 발명한다.<sup>35)</sup> 또한 지성도 본능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자연 그대로의 물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도의 유기 조직이 동물에게 있어야 하며 그러한 높이까지 오르는 데는 본능의 날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상호 보충적인 것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고 본능 속에 있는 본능적인 것은 지성 속에 있는 지성적인 것과 반대의 방향에 있다.

이제 지성과 본능의 좀 더 근본적인 차이점을 논하도록 하자. 본능과 지성을 앞에 놓고 그들 속에 포함된 생득적인 인식을 경시하면 그 생득 인식은 본능의 경우 사물로 향하고 지성의 경우 관계 쪽으로 향함을 알 수 있다.<sup>36)</sup> 본능은 특정 대상의 물질성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도달한다.<sup>37)</sup> 반면에 지성은 아무런 특정한 대상에게도 다다르지 못한다. 그것은 한 가지 사물을 다른 하나의 사물에게, 한 부분을 다른 한 부분에게 연결시키는 자연적인 능력에 지나지 않는다. 본능은 어떤 특정한 사물, 더우기 그 대상의 어떤 한정된 부분 이외에는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이에 관해서라면 그 기능은 내적이고 완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인식은 설명적이지 않아도 실제의 행동 속에 함축적인 것이다. 지성은 이와는 반대로 본래 외적이고 내용이 없는 인식 밖에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점으로 인해 지성은 하나의 틀을 가져다 준다는 장점이 있고 그 틀 속에는 무한한 사물들이 각각 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두 종류의 무의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것은 원래 없는 무의식과 의식이 숨어버린 무의식의 차이이다. 없는 의식과 없어진 의식은 양쪽 모두 0이지만 앞의 0은 원래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나타내고 뒤의 0은 두가지 양의 크기가 같지만 방향이 반대여서 상쇄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낙하하는 돌의 무의식은 원래 의식이 없는 것이다. 본능이 무의식으로 되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 본능의 무의식도 역시 같은 것일까? 우리가 버릇이 된 행동을 기계적으로 할 때, 또는 몽유병자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할 때 그 무의식은 절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무의식은 그 행위의 표상이 행위의 실행에 의하여 실패당하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즉 행위가 표상과 너무나도 완전하게 닮아서 거기에 정확하게 끼이게 되어 어떠한 의식도 넘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위가 표상을 막고 있다.<sup>38)</sup> 그 증거로는 행위가 장애물에 의해 그 수행이 저지되거나 방해받거나 하면 의식이 나타날 수 있음을 들 수 있다. 그 장애물은 어떤 적극적인 것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다만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고 출구를 뚫어

35) E. C. p. 143.

36) E. C. p. 149.

37) 그 구체적 예들은 E. C. pp. 173-174 참조 바람.

38) E. C. p. 145.

주었을 뿐이다. 이처럼 의식의 존재는 행위가 표상에 대해 대응 불충분하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이 점을 깊이 파보면 의식은, 생물이 현실에서 이루는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능한, 잠재적인 활동의 지대에 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주저 내지는 선택을 의미한다. 동일하게 가능한 많은 행동이 부각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의식은 강렬한 것이다. 반면에 실제 행동이 가능한 단 하나의 행동일 경우(몽유병이나 자동적인 종류의 행동에서와 같이) 의식은 무가 되어 버린다. 이 후자의 경우에는 운동의 전체가 체계화되어 있어 그 최후의 운동이 최초의 행동 속에 예상되어 있고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 충격으로 의식이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생물의 의식은 가능적 행동과 현실적 행동의 간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식은 표상과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를 측정한다. 그러므로 지성은 보다 의식 쪽이며 본능은 무의식 쪽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sup>39)</sup>

본능이 자연적인 유기적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라면 본능에는 그 도구에 관한 그리고 그 도구가 적용되는 대상에 관한 타고난 인식이(잠세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본능은 사물에 대한 생득적 인식인 것이다. 그러나 지성은 비유기적인 즉 인공적인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이다. 자연이 생물에게 필요한 도구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까닭은 생물이 상황에 따라 그에 알맞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성의 임무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곤란을 극복하는 길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지성에 있어서 무엇인가 생득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가지 관계를 짓는 경향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지성의 이 같은 본질적 경향은 모든 현상을 불연속적, 반복적 방식에 의해 파악하도록 이끈다. 우리의 행동이 작용을 미치는 대상들은 움직이는 사물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운동체가 어디로 가는가, 임의의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즉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문제 삼는 것은 운동체의 현재 및 미래의 위치이지, 그 운동체가 하나의 위치로부터 다른 위치로 옮겨 가는 진행, 즉 운동 그 자체인 진행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운동 자체를 순간적 부동성에 의해 재구성하려는 영화적 방법으로 발전하며 Bergson은 이것을 지성의 착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성은 물질계의 등질성으로부터 무엇인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차츰 발전시켜간다. 결국 어느 정도 수준에 달한 지성을 특징짓는 것은 모든 사물을 등질적 요소들로 분해하였다가 재구성하며, 반복하는 현상들의 법칙성을 찾아내는 능력이 될 것이다. 동일율과 인과율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지성의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공간이 있다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지성은 불연속적인 것, 부동적인 것, 죽은 것, 반복되는 것을 다루는 경우에 자

39) E. C. p. 145.

신을 갖게 된다. 지성은 따라서 생명에 대한 물이해를 특징으로 한다.<sup>40)</sup>

이와는 반대로 본능은 생명 자체를 본따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지성은 일절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데 비하여 본능은 유기적으로 다룬다. 만일 본능 속에 잠들고 있는 의식이 눈을 뜬다면 그리고 본능이 밖으로 나가 행동하는 대신 인식으로 내화한다면 본능은 생명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 본능은 생명이 물질을 유기화 할 때의 작업을 계속할 뿐이기 때문이다.

본능은 공감이다.<sup>41)</sup> 생물의 몸 속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나누어 가진 수 많은 세포가 공동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며 자기를 위해 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위해서도 살아 자기를 보호하고 양분을 취하며 번식할 뿐 아니라 위협에 처하면 적절한 방어 작용으로 대응한다. 그 중 어느 것도 본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은 세포의 자연적 기능이며 그 생명력의 구성 요소이다. 벌집의 꿀벌들을 보면 그들은 실로 밀접한 유기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어느 개체도 설령 거처와 먹이를 공급해 준다해도 일정 기간 이상은 고립하여 살지 못한다. 이 경우 비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벌집은 단일한 유기체이며 개개의 꿀벌은 그 유기체의 세포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다른 세포와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치 않을 수 있겠는가?

## 7. 철학적 직관

이제까지 우리는 지성과 본능이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 방법이요 동시에 삶의 방식임을 논하였다. 지성은 무생물질 쪽으로 본능은 생명 쪽으로 향한 것이다. 지성은 의식으로 발전하였으나 본능은 무의식이 되었다.

그렇다면 생명을 의식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던져질 수 있다. 이에 대해 Bergson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이다. 지성과 본능은 서로 다른 경향이지만 서로 순수한 상태에서 만나지는 않는다. 어느 유기체를 보더라도 지성과 본능이 공존함을 볼 수 있다. 다만 한 경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다른 경향을 누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성은 인간 내부의 심리 세계, 특히 무의식과 의식 세계의 관계를 잘 반성하여 볼 때 생명의 이해로 나아가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지성과 본능이 조화를 이루는 직관을 생각할 수 있고 이 직관은 의식화된 공감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이제 이 직관을 논함으로써 이 논문의 결론을 짓도록 하자.

직관은 본능이 이해로부터 자유로와져서 자신을 의식하고 대상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면서 그 범위를 끝없이 확대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것처럼 발전한 본능이다. 이러한 종

40) E. C. p. 166.

41) E. C. p. 177.

류의 노력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인간 속에 미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눈은 생명의 여러가지 특징들을 파악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병렬되어 있을 뿐으로 그들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생명의 의도, 즉 진화의 전 과정을 관통하여 그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고 그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단일한 운동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술가가 직관의 노력으로 자신과 대상 사이의 공간적 장벽을 무너트리면서 공감에 의해 대상의 내부로 침투하여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의도인 것이다. 하지만 외부 지각이 모두 그런 것처럼 미적인 직관도 개별적인 것에만 이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탐구가 예술과 같은 방향을 목표로 하면서 생명 일반을 대상으로 선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sup>42)</sup> 여기서 직관은 지성의 기능 그 자체를 이용하여 지성의 틀이 여기서는 정밀하게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직관은 지성으로 하여금 생명은 다자나 일자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기계적 인과도 목적성도 생명 과정의 충분한 변역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직관은 다른 생물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를 생명 고유의 영역으로 인도할 것인 바 그 영역은 상호 침투하며 무한히 연속하는 창조의 차원이다. 그러한 점에서 직관은 지성을 능가하기는 하지만 직관을 그러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는 충력은 지성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지성이 없다면 직관은 언제까지나 본능의 형태를 띠고 자기 자신에게 실용적으로 관계 있는 특수한 사물에게만 고정된 채로 이동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단일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의식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유기화 작업을 식물계와 동물계 두 갈래로 분할하고 난 후 지성과 본능의 두 방향에서 출구를 찾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식은 본능을 가지고는 출구를 찾아낼 수 없었다. 반면에 지성의 방향에서 의식은 인간에로의 급격한 비약에 의해 그 목적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이 지상에서 유기체 전체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표현법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사실상 어떤 종류의 흐름과 거기에 대항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 생명의 진화는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다.